

도시주부의 갈등에 관한 실사례분석 연구

—20명의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조 영 숙
(연세대 간호대학 강사)

I. 서 론

인간은 환경과 계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변화한다(Roy, 1971). 천자중심의 대가족제도이던 우리나라의 가족제도가 부부중심으로 핵가족화 되어감에 따라 부부관계는 가정의 중추로써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부부관계에 의존하고 있는 핵가족제도에서는 부부간의 상호작용이 대가족제도에서 보다 더욱 강하고 상호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를 더 빠르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부부는 서로가 정서적으로 더 많은 것을 기대하게 되었다(이근후, 1973). 그러나 우리 사회의 경우 가치의식면에서는 급속한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행동면에서는 전통적인 경향이 많이 남아 있는 파도기에 처한 문화적 규범의 혼돈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에 정신적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아졌고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은 어떤 면에서는 전보다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주부들이 정신적 갈등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질환을 일으키는 현상을 정신과 임상이나 상담 과정에서 흔히 접할 수 있으며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우기 산업사회의 개방사회적 특성은 남성세계의 확대, 여성세계의 축소를 초래하였다(오감환, 1984). 따라서 결혼의 기대가 남편으로부터 충족되지 않는 아내는 자연히 사회적으로 고립됨에 따라 결혼생활에 불만이 생겨 갈등상황에 처하게 되며 심각한 짜절과 극도의 긴장상태에까지 이르러 결국에는 여러 종류의 신경증 증상을 나타내게 된다. 국내의 많은 정신의학자들(김명정, 김광일, 1984; 김영호, 1981; 김정곤, 1983; 김정일, 박동일, 1987; 민병근, 이길홍, 1984; 민병길, 김경희, 1978; 이세종, 1974) 역시 가정주부들의 심리적 손상 및 신

경증 양상의 주요원인으로써 결혼생활 중 남편과의 갈등을 지적하고 있다.

Frieze(1985), Gove 등(1973)도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정신치료를 원하는 수가 높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주부들이 안고 있는 갈등에 있어, 결혼생활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주부가 경험하는 갈등이 부부각자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녀들의 성격형성과 성장발달에 큰 원인이 되는 가족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신들과 가족구성원들의 건강에 해를 초래한다는 사실이다. 즉, 가족구성원들의 심리적 불안을 조성할은 물론이거니와 문제아나 청소년 범죄의 증가, 가출 또는 알콜중독 등의 사회적 문제를 일으킴으로써 사회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확대되는 일이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핵가족화의 경향에 따라 점점 증가하고 있고, 특히 도시화의 침탄을 겪고 있는 대도시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이효재, 1983).

인간은 누구나 환경변화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 위하여 적응을 해야만 한다(Roy, 1971)고 볼 때 간호사야말로 환자의 적응을 증진시키는 매개체이며 외적인 조정력으로서 활동(김수지, 1985)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간호중재는 부부갈등을 완화시키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족정신건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갈등에 대한 심층연구는 부부의 경서적 구조를 파악해야 하기에 그 성격상 정확히 조사하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에 대한 심층연구는 모집단 선정이 전제되는 표집연구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자는 기초적으로 실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간호실무에서 부부갈등에 대한 간호상담을 실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A.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도시주부들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정신적 갈등을 파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주부의 정신적 갈등양상을 파악한다.
- 2) 주부의 정신적 갈등에 대한 사회구조적 요인을 파악한다.

B. 용어의 정의

갈등—어떤 목표에 대해 접근반응과 회피반응의 강도가 평형을 이루어 서로 맞서 있는 상태(Hall and Lindzey, 1980)이며 본 연구에서는 ‘두개의 양립할 수 없는 욕구의 충돌상태’로서 심층면접을 통해 대상자가 경험하는 미움, 질투, 분노, 욕망 등의 욕구불만 내용을 의미한다.

II. 주부가 경험하는 갈등에 관한 문헌고찰

사회적 측면에서 갈등개념의 이론구축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 학자는 Karl Marx, Max Weber, George Simel 등이다. Marx는 계급 사이의 갈등을 논증하려 했으며, Weber는 권력관계에서 필연적으로 갈등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Simel은 미움, 질투, 욕구, 욕망 등이 사회적 억압을 깨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하였다(박영진, 1980). 갈등개념은 또한 심리학자들에게도 주된 연구과제였다. Freud와 그 학파들은 갈등이란 이드와 초자아 사이에서 같은 경향간에 생기는 내적인 대립을 의미한다고 하였으며, Jung은 ‘갈등이란 억압된 무의식의 욕구가 의식체계 속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데서 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Freeman, 1981).

한편 Lewin은 갈등을 심리학적 행동의 장 이론(Field Theory)에 입각하여 설명하였다. 즉 ‘갈등이란 거의 비슷한 강도를 지닌 場의 힘이 개체에서 서로 반대방향으로 동시에 작용하는 상태’라고 하였다(이진영 1984). Miller(1976) 역시 갈등을 ‘어떤 목표에 대해 접근반응과 회피반응의 강도가 평형을 이루어 서로 맞서있는 상태’로 보았다.

부부관계는 1남1녀의 두 성인이 사회적, 심리적, 정신생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서 평등한 입장에 서서 상대의 개성을 존중하고

협력하더 공동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두 인격체의 결합이다(이효재, 1983). 그러나 신장배경 및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부부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있어서 갈등과 충돌은 있기 마련이며 해결 또한 용이하지는 않다. 부부간에 갈등이 생긴 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여 더 심각하고 복잡한 갈등으로 변하게 된다. 또한 그 압력이 과증될 수록 결혼을 후회하거나 또는 파탄에 이르게 된다(박순희, 1975). 이러한 부부간에 갈등은 당사자들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 각 개인의 인격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Goode, 1971).

한편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갈등은 그 사회의 문화형태에 따라 다르다. 이정택(1970)은 이혼 생활양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 지배적 배드에서 오는 것, 기대에 어긋날 때 오는 것, 성적불만에서 오는 것 등으로 분류했으며 한남재(1971)는 배우자간의 가장 빈번한 갈등의 내용이 대개 재정적인 문제, 친척관계, 부부간의 성격 불일치, 배우자의 무관심과 부정행위 등에 관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Leslie는 많은 주부들에게 있어서 시부모 문제가 결혼의 행복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강조했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 시가족과의 갈등은 특히 심각하다(이경애, 1980; 유가호, 1976). 한영춘(1979)은 부부갈등 요인으로서, 성격차이, 사회적·문화적 배경차이, 역할기대의 차이, 경제적 문제, 성관계로 인한 긴장, 자녀교육 문제, 친척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밖에 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의 부족 및 디성숙도 부부갈등의 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개인적 요인이외에 흉수, 폭풍, 가뭄과 같은 자연적인 재해나 핵가족화, 여성의 취업율증가, 새로운 성윤리관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도 부부갈등의 유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김주수, 1973)

Berland는 그의 ‘A Shock Theory’에서 결혼이 여성들의 생활에 깊은 단절을 야기시켜 정서적 긴장상태를 일으킨다고 발표하면서 일반적인 Shock의 예로서 삶의 스타일에 있어서 괴리(gap)를 지적하고 있다. 즉 신선여행이 끝남과 동시에 로맨틱한 생각도 끝나고 구혼기간 동안 최상의 행동만을 하던 태도에서 결혼직후의 요구하는 태도, 그리고 실제생활에서 경험하는 privacy의 결여, 음식을 대접받던 입장에서 음식을 준비하는 입장으로 바뀌며 이러한 생활의 괴리 내지 단절은 자신에 대한 재정의와 가정에서의 역할의무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shock은 대개의 여성들은 결혼에 대해 실제와는 너무나 차이가 있는 환상

적이고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은 원래 의존적 존재로서 보다 강한 남성에게 의존하도록 되어 있으며(Bernard, 1982) 따라서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결혼하나 남편이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당황하고 충격받게 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결혼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많은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적응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빚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성의 불행과 인생에 대한 수동적인 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Tauris(1973)는 주부의 고립적인 삶, 핵가족화나 도시화, 높은 직업이동성이 확대가족적 유대나 지속적인 이웃관계를 깨뜨려 주부들로 하여금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만든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병원의 신경정신과를 찾는 주부들의 수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특히 우울증이나 히스테리, 신체화 장애, 궫병 등이 많다고 한다(이세중, 1974). 김명정, 김광일(1980)은 기혼남성에 비해 기혼여성에게 히스테리 신경증환자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기혼남성이 경제적인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요 받는 대신에 권위와 권력을 부여받는데 비해,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은 복종해야 하고 참아야하는 피압박증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Bernard(1982) 역시 가사노동의 비전문성과 일상성은 주부의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첫째, 결혼생활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정신적 갈등 양상들은 사회문화 형태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남편들보다 주부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둘째, 갈등이 계속 축적 심화될 경우에는 주부들이 신경증 증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인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주부가 갖는 갈등은 가정의 안정과 행복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까지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대상 및 방법

실사례의 대상은 연령의 제한없이 자녀를 가진 주부로서 심층면접이 가능하고 Marriage Encounter(M.E.)

첫 부부주말 모임에 응한 주부와 Life Line을 이용한 도시 주부 20명이었다.

실사례의 심층면접은 1988년 5월 31일부터 1988년 12월 29일까지 이루어졌다.

면접방법은 주부의 정신적 갈등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자녀관계, 성관계, 남편의 외도, 자아실현 및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결혼 당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일, 겪은 일들에 대한 내용을 특별한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개방식 질문방법을 사용하였다.

면접환경은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제공할 수 있는 상담실과 대상자의 집으로 비밀이 보장될 수 있고 외부의 방해받지 않으므로써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

면접하는 동안에는 Goldman(1980)이 제시한 치료적 접근방법을 기초로 하여 정서의 자세와 함께 원근거리에서 대상자의 시선과 초점을 맞추면서 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하며 조건없이 절에 머물러 있어 힘이 되어 주면서 사회적 현실감의 분담을 꾀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였다.

실사례의 개인별 총 평균 면접시간은 2.6시간이 소요되었다.

IV. 파악된 도시주부의 정신적 갈등상황

A. 실사례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상담사례 중 대상자의 연령은 20대가 13.3%, 30대가 60%, 40대가 20%, 50대가 6.7%로서 주부갈등을 가진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으며 학력별로는 '중졸' '고졸'이 각각 9%, '대졸 이상'이 81.8%로서 대졸 이상이 가장 많았다. 사회경제적 수준은 대상자 자신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때 '하류층' 9%, '중류층' 54.5%, '상류층' 36.4%로서 대부분(91%)이 중상류층 이상이였다. 결혼형태는 모두 '초혼'이었으며 결혼횟수는 '5년 이하'가 27.3%, '6~10년'이 45.5%, '10년 이상'이 27.3%였다. 또한 대상자의 72.8%가 직장이 없는 전업주부로서 형제순위는 '말딸'이 45.5%, '막내'가 27.3%, '외동딸'이 18%였으며 대상자의 82%가 어릴 때부터 비교적 남자형제와 차별받지 않고 부모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고 응답해 주었다.

종합적으로, 결혼후 정신적 갈등을 호소한 주부의 일반적 배경을 살펴보면 주로 30대의 대졸출신으로서 중

상류층의 전업주부에게서 갈등호소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주목해야 할 점으로 사료된다.

B. 파악된 정신적 갈등 양상

상당사례 대상자들이 표출한 갈등양상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 본 결과, 부부사이 성격차로 인한 갈등, 부모-자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 성적갈등, 남편의 부정으로 인한 갈등, 자아 실현 및 경제력 결여로 인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1) 부부사이 성격차로 인한 갈등

부부간의 성격차이는 결혼갈등의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사례 중 36세인 B주부의 남편은 제삼자에게는 온화하게 대하지만 아내에게는 불인정하고 독선적 성 인격이다. 무조건 철저히 여자위에 군림하고 싶어 하는 그녀의 남편으로부터 많은 무시와 모욕을 당할 때마다 B주부는 설움에 복받쳐 한없이 운다고 말하였다. 한편 W주부의 경우는 “결혼 14년이 된 지금까지 남편을 믿지 못하는 성격인 남편은 항상 가계부를 검사, 참견하였고 정확히 기입하지 않는다고 화를 내며 1만원 이상 지출시엔 자기허가를 받으라고 한다”고 말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G주부의 경우도 세심하고 빈틈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남편은 G부인에게 ‘주부로서 기본도 못 갖춘 여자’ ‘한심하다’ ‘대학은 나왔나?’ 등의 편박을 주었다. G주부는 비록 겉으로는 참지만 자존심이 상하고 반감이 생겨 속으로는 남편을 향해 욕을 하며 경멸해 버린다고 했다. Y주부 역시 결혼 전에는 ‘불같은 성격’이었으나 독단적인 성격의 남편에게는 뭐든지 참아야 하기에 그녀의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나간다고 호소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하여 볼 때, 대개의 우리나라 주부들은 권위적인 남편에 대한 불만을 참고 견디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주부들일수록 갈등의 정도가 더 심각했다. 또한 가사수행에 있어서 남편의 월급을 전적으로 받아서 살림하는 주부들보다 남편 자신이 직접 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주부에게 경제감의 위기까지도 발생하고 있었다. V주부는 자기 자신에 대해 “나는 남편의 부인이 아니라 이집의 식모다”라고 표현했다. 그녀의 남편은 세 자녀를 낳은 지금까지도 월급봉투를 주지 않아 매일 눈치보면서 하루 몇천원씩을 타서 써야하는데 밤에 김치만 있으면 되니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느냐”고 타박을 하는 인색한 남편에게 V주부는 사랑이나 신뢰

감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서 원하는 행동과 감정이 서로 다를 때에는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며(Turner, 1970), 주부는 갈등과 스트레스상황에 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2) 부모-자녀간의 갈등

‘아버지 부재’의 핵가족 내에서 주부는 자녀양육의 유일한 담당자이다(조혜경, 1981). 그러나 부부간에 누적된 불만과 스트레스를 주부들은 자녀에게 쉽사리 투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33세의 Y주부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서 “남편에게 투정도 부리고 싶고 헛점도 보이고 싶지만 자존심이 앞서서 되지 않는다. 결국 신경질이 아들에게 향해서 밤먹을 때 아들이 만화책을 보기라도 하면 책을 몽땅 찢어버리고 두들겨 패느라고 핑퐁어서 아이와 나, 모두 진땀을 빼고 훌쩍 젖게 된다”고 말했다. 결국 주부의 갈등은 자녀를 ‘희생양(Scapegoat)’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한편 자녀문제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갈등적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는데 대학출신의 W주부는 공부못하는 아들에게 ‘바보같은 녀석’, ‘병신’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고 괴로워했다. ‘이제부디는 그러지 말아야지’, ‘난 더 못했는데’ 생각하면서도 옆집 아들이 밤늦게까지 공부했다는 소리를 들으면 아들에게 울화가 치밀어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이상적인 교육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나친 경쟁심, 부모의 과잉교육열만 존재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에게 심리적손상을 입히며, 모성의 위치는 더욱 불안해졌다고 할 수 있다.

3) 고부간의 갈등

현대의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여성들은 전통사회의 며느리들보다 며느리 역할을 맡아들이기가 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현대 여성이 느끼는 고부간의 갈등은 더욱 심각한 것이다. W주부의 시어머니는 대학출신으로서 외적으로는 교양있어 보이고 며느리에게도 따르 살림을 내주었다. 그러나 일주일에 네번 정도, 아들집에 와서 자고갈 때마다 빈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아들과 함께 잔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궁의 임신으로 아이를 못 낳는 W부인이 양자를 데려다가 키우자 ‘칠거지악이면 스스로 나간다면네’ 하는 말을 수없이 혼자 증얼거린다고 하였다. 또

한 은행원으로 일하는 E주부의 경우도 “며느리란 공인된 종이니 황소처럼 먹고 일만 잘하면 된다”는 말을 시부모는 물론이거니와 시누이들까지도 서슴없이 말한 나머지 한탄하였다.

한편 시아버지와외의 갈등으로 고민에 쌓여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D주부의 혼자사는 시아버지는 대학출신에 경제력있는 분이로서 결혼 당시 시댁옆에 아파트를 사주었다. 딸며느리인 D주부는 시댁을 드나들면서 반찬을 해 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미워하게 된 시아버지는 ‘딸며느리가 한 것은 먹지 않겠다’며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아들손주 낳은 동서만을 편애하였다. 그러면서 D주부의 딸들이 할아버지를 싫어하는 것도 ‘며느리가 시켜서 그런 것’이라고 원망을 한다고 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요즘은 가지않으니까 이번에는 시누이가 ‘딸며느리 도리가 그러냐’고 따진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가족형태와 기능간의 모순에서 오는 갈등으로서 외형적인 가족형태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의 이념이 가족구성원 전부를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중에서도 낮은 가족에 편입되어 온 며느리가 받아야 하는 심리적 손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하였다.

4) 성적 갈등

부부간의 성관계는 평등한 사람을 전제로 한 인격적인 관계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흔히 성관계는 거의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많은 주부들은 성적욕구불만을 갖게 되어 그것이 갈등적 상황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예로 57세의 N주부는 “성관계에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언제나 남편은 자기 기분대로만 한다”고 불쾌해했다. 그러나 막상 아내측에서 성관계를 원할 때에는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30대의 R주부, G주부는 “Sex는 권태로운 삶을 생기 있게 해주는 큰 요소다”, “Sex를 즐기며 살고 싶다. 그러나 남편은 냉정히 거절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R주부, G주부의 경우는 남편과의 성생활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성적욕구가 무시되거나 억제됨으로써 자존심이 상하고 결혼 생활에 회의가 생겨 잠이 오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이나 사회참여를 하고 있는 주부에게서는 양상이 달랐다.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M주부의 경우는 “공부에 집중할 때는 남편이

외박해도 상관없다. 오히려 공부시간이 가능해져서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이상의 사례에서 살펴본 것처럼 많은 경우 여성에게도 성적욕구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혹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성적욕구불만은 더욱 커지게 된다.

5) 남편의 부정으로 인한 갈등

부부관계란 애정적 관계형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에 남편의 부정은 주부의 정서감 또는 가정의 존엄문제에 가장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46세의 C주부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토요일마다 낚시평계를 타고 외박하던 남편은 C부인과 다투게 되자 부인을 의무증환자로 대물었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남편래 독신녀와 동거하며 3년간을 외도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불륜현장을 부인에게 들리게 되자 남편은 오히려 온갖 목설로 큰소리를 쳤고 아직도 일을 구실삼아 새벽에 들어오곤 한다. C주부는 “이혼도 생각해 보았지만 살아나갈 길이 막연했고 아이들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로 인하여 “남편에 대한 불신감, 증오심이 자꾸 생기면서 늘 옆구리와 머리가 아프고, 불안하고 짜증스럽다’ ‘몸서리가 차진다’”고 호소하며 ‘죽고 싶다’고까지 표현하고 있었다. 미혼여성과의 부정으로 부부싸움이 잦다는 L주부의 경우도 귀가시간이 늘 늦는 남편이 오히려 “남자가 한번 외도하는 것이 뭐 나쁘냐”고 큰 소리치며 집에 와서는 말도 안하고 지낸다. 그러한 남편에 대해 L주부는 극도의 분노를 느끼면서도 참고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인 34세의 H주부는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견디기가 힘들 때는 미칠 것 같다” “왜 살아야 하는지 갈등을 느끼게 된다”며 결혼을 후회했다.

그러나 한 남성의 부정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비단 한명만이 아니다. 35세의 M주부는 남편의 신혼초부터 계속된 외박, 동거 등 수많은 여성편력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두 자녀와 함께 늙기를 밥먹듯 하여서 세 식구 모두 몸이 허약하다”고 말하며 눈물지었다. 새 엄마인 J주부 역시 남편이 외도를 하자 전처의 아이들이 “아빠가 또다른 여자에게 가던 우리는 또 다른 새 엄마에게 가야 하느냐”며 반문했다고 한다. 기타 사례중에도 남편의 외도로 갈등을 겪는 경우는 예상보다 많았는데 그중 남편의 외도라는 이유만으로 이혼하고자 결심하는 경우는 한명도 없었으며 많은 주부들이 “남자는 그럴 수도 있겠지”하는 식으로 실수를 정당화시키면서

“그래도 남편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는 여성의 성적욕구와는 달리 남성의 성적욕구는 억제할 수도 없고, 또 억제할 필요도 없다는 우리나라의 이중적인 성관념에 기인하고 있다. 그러나 주부의 경제적 무능력과 우리 사회의 법적 불평등에 의해 더욱 강화되는 이중적인 성관념으로 말미암아 깊은 심리적·신체적 손상을 받는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주부와 자녀들로서 특히 어린이들에게 미칠 영향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고 사료되는 바이다.

6) 자아실현 및 경제력결여로 인한 갈등

결혼과 함께 가정에만 머무르는 주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을 열등하고 무력한 존재로 깨닫게 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편과 가족구성원들로부터 충분한 감정적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 그리고 고등교육을 받은 주부일수록 자신의 위치를 모순적으로 느끼게 된다. 더구나 자아실현의 욕구를 강하게 가지는 주부들은 갈등적 상황에 빠지게 된다(한혜경, 1984). 그러나 일단 자신의 위치를 모순적으로 느낀 주부들은 자아실현을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오랜 갈등으로 인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들과 별 접촉없이 지냈었다는 36세의 L주부는 “더 이상 그대로는 못 살 것같아서 대책을 강구한 끝에 어려운 가정 형편이긴 했지만 대학원에 진학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남편의 도움으로 졸업을 무사히 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전에는 애정을 못느꼈었던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다. 또한 L주부는 “박봉 중에 봉부시켜 준 남편이 고맙다. 졸업후 3년 동안이나 일 자리를 얻지 못해 미안했었는데 이제야 수입원을 갖게 되었으니 남편에게 의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본 사례들 중 주부 스스로 수입원을 갖지 못한 채 남편에게만 의존해야 하는 많은 주부들이 사랑보다는 경제적 필요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스스로 경제력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갈등을 느끼고 있었고 경제활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실제로 L주부의 사례는 자아실현을 통해 부부 갈등까지도 극복한 성공의 경우를 보여준다. 비록 우리 사회가 유교적 관념 등으로 인하여 주부의 자아실현방법이 매우 제한(한혜경, 1985)되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의미의 자아실현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갈등적 상황을 극복하는 대응책으로서 제시될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V. 트 의

본 논문의 초점이 되는 도시 주부의 정신적 갈등의 사회적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례자료를 기초로 하여 전통적 결혼관, 결혼동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가부장적 권위의식 역할 대안의 불평등의 순서로 분석을 한 단계 더 전제시키기로 한다.

A. 전통적 결혼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결혼을 비선택적인 집단간의 계약으로서 격령기에 해야 할 제도로 간주하며 결혼대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부모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적 결혼관은 현대사회의 보편적 변화추세에서는 부부갈등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정작 결혼에 문제가 있을 때 갈등을 겪게 되는 사람은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비록 갈등이 심화되었을지라도 체면을 존중하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체면유지상 갈등을 덮어두고 한 지붕밑에 산다는 것 자체만을 중요시하고 있다. 더구나 여성들에게는 여성상의 전형으로서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인 현모양처상이 바람직한 인간상으로 강조되어 왔으며(황중건, 1976), 아직도 여성에 대한 문화적 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함완상, 1975).

실제 사례에서 나타난 S주부, Z주부처럼 우리나라 주부들은 대체로 부모가 정해준 남자와 결혼하여 ‘완전복종’을 내세우는 시부모와 남편을 섬기면서 목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가슴조이며 살면서도 무조건 ‘운명이러니’하고 참고 체념하며 살아간다. 특히 우리나라 주부들은 배타적인 가족구조속에서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의논한다’는 것은 용이치 않으며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만 돌림으로써 자기비하의 경향은 더욱 강해진다. 뿐만 아니라 결혼에 대해 자신을 변형시키는 사회화 과정으로 생각하면서 동기화나 지적 발전도 증진한 채로 오로지 현모양처만을 최대목표인 양, 힘겨운 노력을 계속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결혼제도란 개인의 선택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B. 결혼동기

기혼여성이 기혼남성보다 신체적 건강이 좋을 때조차도 더 많은 정신건강의 위협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여성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근거하는 것일까?

Bernard(1982)에 의하면 부모로부터의 해방, 아기

를 얻기 위해서 또는 고독이나 사회적 고립, 불안정성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또는 사회적 기대라는 압박, 그밖에 그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본 사례에서의 K주부 역시 어려서부터 말썽쟁이 취급을 받아왔던 터인저라 모범적인 언니와의 라이벌 의식으로 인해, 즉 자신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안으로 결혼을 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애정도 없이 무조건 '부자 남자'라는 조건에 이끌려 결혼하였기에 일차후 남편사업이 망하게 되자 K주부는 심각한 갈등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는 물질만능의 현 산업 사회가 흔히 빚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Mitchell의 연구에서도 경제적 배경은 부부갈등유발에 있어 가장 빈번한 문제였다(김혜성, 1982)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C.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및 가부장적 권위의식

가부장적인 가치관이 아직도 상당히 잔존해 있는 우리 사회의 경우, 남편은 도구적인 역할(Instrumental role)을 담당하고 부인은 '표현적인 역할(Expressive role)을 담당하게 되는 것으로 보는 성차별적인 전통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최계식, 1971). 더구나 결혼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부부의 역할이 더욱 윤행화되어 남편의 가사활동은 감소되고 여성의 이미지는 부정적이 되어 버린다고 한다(Deacon, 1975). 따라서 한국 도시에서는 부부간에 아내의 가사활동, 남편은 생계비담당의 성적 분업경향이 명백해졌다. 본 사례에서도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H주부의 경우, 딸태를 하고 있는 동안 아이들은 방바닥을 뜯어내고 있어도 남편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가정이 전적으로 주부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남편 및 자녀에게 뿌리 박혀 있는(육선화, 1982; 서영숙, 1976; 이정우, 1972) 상황에서는 가족구성원간에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는 불가능하게 되어 갈등만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된다.

여러 학자들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정승혜, 1988; 최규련, 1984; 이정련, 1982; 박태은, 1983; Scanzoni 1975) 남편의 성역할 태도가 근대화 되었을 때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Bailyn(1970)의 연구에서 결혼행복도가 높은 주부인 경우에 가사 및 육아에 대한 남편의 참여가 많았다는 보고는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아직도 수평적이기 보다는 수직적이기 때문에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고 부

인의 자존심을 꺾으려 하는(민성길, 1987) 우리 사회의 권위의식은 인격의 성숙을 서로 불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부부관계에 친밀성을 제약하여서, 갈등상황을 초래하는 주요근원이 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D. 역할대안의 불평등

사회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역할을 공유하고 있는 남성들과는 달리 대개의 여성들이 주부의 역할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은 전업주부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왜냐하면 남성은 외부의 접촉을 통해 분명한 정체감을 가지는데 비하여 가정 안에서만 고립적으로 존재하는 전업주부들은 자신의 문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수 없게 되고 자기비하의 경향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다(Gove & Twdor, 1973). 더구나 막대한 가사노동의 양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하는 것으로 여겨져 주부가 하는 가사일의 가치는 떨어졌으며(Tilly & Scott, 1978) 가사노동의 두보수성은 가사일을 친한 노동으로 여겨 주부의 지위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Bernard, 1982). 그러므로 고등교육을 받은 주부가 역할대안이 없는 가운데 가사노동만을 수행할 때 여기서 생기는 괴리로 인하여 좌절과 갈등적 상황에 빠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과반수 이상의 주부들이 가정주부의 역할만을 하는 것에 만족치 못하고 현재 혹은 미래에 다른 역할을 하고자 원하며 가족과 직업이라는 두가지에 자부심을 지니는 여성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많은 연구 결과들(김은주, 1979; 박미영, 1987; Booth, 1977; Yogev, 1981; Houselet, 1982)은 역할대안의 필요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주부의 역할대안에서는 남편의 역할분담 등의 가족협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역할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구성원들, 특히 남편의 감정적 지지 및 가치인정이므로 부부는 끝없이 상호간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주부들이 지속적으로 가지는 정신적 갈등을 사례연구를 통하여 파악함으로써 간호실무에서 가족정신 건강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부갈등에 대한 간호상담을 실시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실 사례의 대상은 M.E. 모임과 Life Line

을 이용한 도시주부들 중 자녀가 있는 20명을 대상으로 하여 1988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심층 면접하였다.

도시주부의 갈등적 상황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부부 사이의 성격차이로 인한 갈등, 부모-자녀간의 갈등, 교부간의 갈등, 성격갈등, 남편의 부정으로 인한 갈등, 자아실현의 결여 및 경제적 결여로 인한 갈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주부의 정신적 갈등의 사회적 요인을 밝히고자 전통적 결혼관, 결혼동기,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가부장적 권위의식, 역할대안의 불평 등으로 나누어 분석해 보았다. 도시 주부들의 갈등은 성격상 자녀 등 가족구성원에게 깊은 영향을 끼쳐 청소년 비행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발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주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문제는 사회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해결을 위한 노력도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부부를 함께 상담하지 못했으나 간호 상담에 있어서 부부를 모두 상담할 수 있다면 정확한 사정과 함께 보다 효율적인 해결방안이 모색될 것이다 또한 기혼남성과 기혼여성의 성차에 대한 갈등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김명정, 김광일(1980), "신체화 장애의 임상적 연구," 정신건강연구, pp.137~158.
 김미숙(1980), 산업사회에서 도시주부의 역할에 대한 태도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김수지(1985), 간호이론, 서울: 수문사.
 김영호(1981), 신경증 환자의 신체증상에 대한 임상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20, pp.375~81.
 김은주(1979), 도시부인의 직업 및 가정생활에 대한 일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김정근(1983), "중년여성 임원환자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2(4), pp.639~48.
 김정일, 정인광, 곽동일(1987), "전환장애와 신체화 장애의 임상적 비교연구," 신경정신의학, 26(2), pp.306~33.
 류시중(1975), "한국 도시가족의 연구," 경북대 논문집, 17, pp.28~44.
 민병근, 이길홍, 김현수, 나철, 이제우(1984), "입원한 정신장애의 부부결합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의 과학, 16(5), pp.225~39.

민정길, 김진학(1986), "보길도에서의 '화병'에 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25(3), pp.463~64.
 박미영(1987), 한국취업주부의 결혼 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순희(1975), 이혼위기 개입을 위한 부정현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태은(1983), "성 역할 태도와 결혼 만족도간의 관계, 가정관리학회지, 1(2), pp.139~50.
 서영숙, 조필교(1976), "가족성원간 가사노동 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 pp.1~13.
 오감환(1974), 사회의 구조와 변동, 서울: 박영사.
 옥선화(1982), "한국 도시가족의 역할구조분석(II)," 성심여대논문집, 13, pp.5~34.
 유가호(1976), 한국 도시가족의 교부갈등의 실태와 전망,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경애(1981), 교부갈등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근후, 이동원(1973), "도시 가족내의 부부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논문, 22, pp.277~306.
 이제중(1974), "우석병원 신경정신과 의뢰환자에 대한 통계적 고찰," 신경정신의학, 13(3), pp.336~42.
 이정덕(1980), "가족의 인간관계," 성심여대논문집,
 이정연(1982),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이정우(1972), "가족성원간 가사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2), pp.1~10.
 이호재(1983),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정승혜(1988), 부부의 성역할 태도에 따른 결혼만족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최규련(1984), 부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2), pp.91~102.
 최신덕(1973), "도시 부부의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논문, 22, pp.87~120.
 최계석(1971), "한국 도시가족의 권력구조," 아세아 연구, 44.
 한남제(1971), "한국 도시가족의 가족문제," 경북대학교 논문집, 15, pp.107~120.
 한영춘(1979), 한국가정병태와 청소년문제, 서울: 여문각,
 한혜경(1985), 한국도시주부의 정신적 갈등의 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Bailyn, L. (1970), "Career and Family Orienta-

- tions of Husbands and Wives in Relation to Marital Happiness," *Human Relations*, 23(2), pp. 97~113.
- Bernard, Jessie(1982), *The Future of Marriage*,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Booth, Alan(1977), Wives Employment & Husband's Stres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 pp. 645~49.
- Deacon, R.E. and Firebaugh, F.M. (1975), *Home Management Context, and Concepts*, Boston, Houghton Comp.
- Freeman, Lucy(1981), *Freud and Woman*, New York, Ungar Comp.
- Frieze, Irene H.(1985), 여성과 성역할, 최 의선역, 영남대학교 출판부.
- Goldmann, M. (1980), "Effect of Eye Contact and Distance on the Verbal Reinforcement of Attitude," *J. of Social Psychology*, 8, pp. 73~78.
- Gove, W.R. and Tudor, J.F.(1973), "Adult Sex Roles and Mental Illness," *Changing Women in a Changing Society*, Chicago Univ.
- Hall, C.S. and Lindzey, G. (1980), 성격의 이론, 이상로, 이관용(공역), 서울, 중앙적성출판부.
- Holt, John Caldwell(1972), *Freedom and beyond, Harmondsworth*, Penguin.
- Houseknecht, S.K. and Mache, A.(1982),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Success Among Dual-Worker Couple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2, pp. 53~62.
- Kaplan, Alexandra G.(1980), *Psychology and Sex Roles*, Boston, Little Brown.
- Nye, S.J., Hoffman, Louis and Bahr, A.C.(1974) *Working Mothers*, Jossey-Bass, Inc, Publishers.
- Plaskow, Judith(1980), *Sex, Sin and Grace*, Lanham Univ, Press of America.
- Roy, Callista,(1971), "Adaptation A Basis for Nursing Practice," *N.O.*, 19(4), pp. 254~57.
- Yoger, Sara(1981), "Do Professional Woman have Egalitarian Marital Relationship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 pp. 865~71.

Mental Conflicts of Urban Korean Housewives A Qualitative Analysis of 20 Interviews

This study analysed marital conflicts, related factors, and adjustments to those conflicts described by urban Korean women. The purpose was to discover directions for resolutions that would enhance the helpfulness of volunteers or professionals working with women in counselling settings.

The investigator interviewed 20 married women, all mothers and housewives living in Seoul, attending marriage encounter programs and the Lifeline telephone counselling service. An interview schedule using six open-ended questions guided the data collection which took place between May 31 and December 29, 1988.

Content analysis of the data revealed, in order of reported frequency, the following areas of conflict: relationships between husband wife, relationships with children, relationships between the wife and her mother-in-Law, unsatisfied sexual needs, the husband's extra marital relationships, lack of self actualization and financial matters.

Analysis of the data suggested the following factors were related to the conflicts: reasons for marriage, traditional views about marriage and divorce including to accept a marriage arranged by the parents, the husband's traditional attitude toward the sex role of the wife, the husband's patriarchal authoritarianism, and his attitude toward the wife's employment outside the home.

The women thought these conflicts severely affected their relationships within the family, particularly with their children. Literature suggests links with such poor parent-child-family relationships and adolescent or young people's social problems.

Volunteers or professionals working with married women in counselling situations need to be conscious of the possibility of these conflicts during assessment, and direct their guidance toward such conflict resolution. The researcher makes several suggestions which include the need for the husband to give emotional support to his wife, to recognize the worth of housework, to share the work of the home, to find ways to enhance the wife's self-actualization and to ease dreary housework routines by providing modern appliances.

◇ 투고 규정 ◇

1. 본지에 투고할 수 있는 원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연구논문(증설 포함)
 - 2) 사례보고
 - 3) 수 기
2. 투고자격은 본회 회원이어야 하며 비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 1) 본회 회원과 공동연구를 하였을 때
 - 2) 본회가 의뢰한 원고일 경우
 - 3) 본회 출판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원고의 채택에 대하여는 출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게재료 및 원고료
 - 1) 연구논문 : 게재료 저자 부담 1페이지당 10,000원(별책 20부 포함)
 - 2) 원 고 료 : 사례, 수기 등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불
5. 본지에 이미 게재된 동일 내용의 원고를 게재하지 않으며 본지에 게재된 것은 임의로 타지에 게재할 수 없다.
6. 원고는 200자 원고지에 맞춤법과 띄어 쓰기를 정확히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꼭 필요한 한자나 주문 사용시는 ()속에 평기해야 한다.
7. 논문에 있어 국문원고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는 국문초록을 각각 첨부해야 하고 영문인 경우에는 타자하여야 한다.
8. 참고문헌은 원고말미에 가나다와 알파벳 순서로 기재한다.
본문에는 괄호속에 저자명과 년도를 표시한다.
9. 원고접수는 수시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앞

* 참고문헌 보기

단 행 본

참고문헌 : 저(원)자명, (년도), 서(논제)명, 출판지, 출판사명, 면수

경기간행물

참고문헌 : 저(원)자명, (년도), "표제" 간행물 명칭, 원수, 면수

[격 월 간]

대한간호

(제28권 제3호) 통권 151호
1965년 6월 29일 등각
등록번호 (바) 137

The Korean Nurse

Vol. 28, No. 3 Sept. 30, 1989

Publisher (Editor): Mo Im Kim

Published Bimonthly by

Korean Nurses Association

88-7, Ssanglim-Dong, Choong-Ku,

Seoul, Korea.

서기 1989년 9월 13일 인쇄
서기 1989년 9월 20일 발행
발행 겸 편집인 김 모 임
인 쇄 인 김 병 구
발 행 처 삼림 대한간호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쌍림동 88-7 (279) 3618
(279) 3619

인쇄 천풍인쇄주식회사